

아시아 랜드마크될 ‘도자문화관’ 들어섰다

국립광주박물관, 첫 도자 전문 전시관 오늘 개관
신안해저 출수품 7000여점 공개…개막 특별전도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자문화관’이 작공 2년 만에 문을 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하루 앞둔 17일 언론공개회를 갖고, 한국 도자기 1000년의 유산과 14세기 신안 해저 문화유산 7000여점을 공개했다. 국립박물관 최초로 개관한 도자기 전문 전시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문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도자문화관은 국립광주박물관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성과로, 2023년 착공 이후 공사와 내부 전시 설치를 마무리하며 완성됐다.

현재 갖고 있는 도자는 9만1000점이다. 도자관 개관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도자 2만5000점을 광주로 이전했다. 고 이견희 회장이 광주박물관에 기증한 1000여점, 충효동 분청사기 1만2000여점, 완도 3만여점과 강진 사당리 및 광주지역 출토 유물 역시 포함됐다. 이는 현재까지 보지 못한 대규모다.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고려 12세기)

도자문화관 건축 연면적은 7137㎡,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한국 도자 및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과 디지털 아트존·소장품을 최대한 높인 도자 전용 수장고가 마련됐다.

한국 도자 전시실은 ‘한국 도자기, 1000년’이라는 주제로 고려의 청자에서 조선의 분청사기·백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도자기 천 년의 역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한국 도자기는 고유한 미의식 위에 주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장인들의 끊임없는 실험과 혁신이 더해지며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생산의 관점에서 제작기술의 진화, 한국적 미감, 마침내 모두의 그릇이 된 자기의 역사·문화를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침의 모양 병’과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보물 ‘백자 청화 산수무늬 팔각연적’ 등이 출품돼 눈길을 끈다.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에서는 1323년 침몰한 신안해저선과 함께 바닷속에서 되살아난 14세기 동아시아 해상교류와 무역의 실체를 조명한다. 신안해저 문화유산은 1975년 전남 신안 중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후 1976년부터 본격적인 수중 발굴을 통해 도자기와 교역품 수만 점이 확인됐으며, 이를 계기로 1978년 국립광주박물관이 건립됐다. 인양된 신안해저유산은 도자기 2만5000여점, 금속제품, 동전류 28t, 자단목, 선상 생활용품 등 총 2만7000여점에 달한다.

신안해저선은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14세기 해상교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200t급 대형 무역선으로, 출수 도자기는 신안해저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표하는 핵심 유물이다. 이번 전시는 ‘바다를 건너 꿈, 신안해저선’을 대주제로, ‘청자 여인상’, ‘주름무늬 항아리’, ‘시문 청백자 접시’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이 18일 문을 연다. 사진은 고려인의 미감이 어우러진 12세기 비색청자 병과 접시, 잔과 받침, 항아리들.

아 문화교류의 현장과 당시 사람들의 삶 및 취향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몰입형 미디어 전시실인 디지털 아트존은 길이 60m의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ICT 기술을 접목, 고해상도 영상과 고품질 음향, 공간 전체를 감싸는 입체 시청각 연출로 영상 속에 들어가는 듯한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개관 기념 첫 콘텐츠인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는 광주·전남의 대표 자연경관을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흙·물·불이 빛어낸 도자기의 탄생 과정을 서정적으로 재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상영 후에는 인종샷을 남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공한다.

향후 도자기를 비롯한 문화유산 원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자문화 미디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층은 관람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엄숍과 카페를 조성해 보는 공간을 넘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를 꾀했다. 야외에는 고 이견희 회장기증 석조문화유산 41점이 조성됐다. 뮤지엄숍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도자기를 모티브로 자체 제작한 덩글팟(Dangle POT)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신규 상품을 출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문화상품도 광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해 특별전 ‘푸른 세상을 보다, 고려 상형청자’이 함께 개막한다. 전시는 지난 3월에 종료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고려시대 도자공예의 예술성을 대표하는 ‘상형청자’(象形淸磁)를 광주에서 선보인다.

‘청자 어룡모양 주자’ 등 국보 3건, ‘청자 죽순모양 주자’ 등 보물 3건을 포함해 최고급 고려 상형청자의 정수 131점이 본관 특별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최흥선 관장은 “도자문화관 개관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이 도자기를 매개체로 동아시아 속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으면 한다. ‘광주박물관’하면 ‘도자기’라는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자문화관이 광주·전남의 대표 명소가 되는 것과 함께, 도자문화관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도자 문화가 융합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K-도자기 붐’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수경 작가 초청 ‘쓰다 만 시 낭독회’ 가볼까

내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념전으로 마련된 ‘장미 토끼 소금·살아 있는 제의’ 전시와 연계한 이수경 작가 초청 프로그램을 19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에서 갖는다.

‘미술가 이수경과의 대화: 쓰다 만 시 낭독회’라는 타이틀로 이뤄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초대작가인 이수경씨가 직접 쓴 시를 낭독하는 동시에 전시 출품작과 작가의 예술 세계에 관한 질의응답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다. 또 이 프로그램은 ‘장미 토끼 소금: 살아 있는 제의’ 전시 기획자인 홍윤리 학예연구사가 대담자로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경 작가는 도자기 파편을 이어붙이거나, 잊혀진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며 감각적으로 복원하는 제의적 실천을 작품화했다. 작가는 상설과 상



처를 예술적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작업의 핵심으로 삼아, ‘부재의 감각’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도자기 파편을 이어붙여 재생을 형상화한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의 작품은 일상, 퍼포먼스,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회

복의 실천으로 확장됐다. 특히 파편화된 조각, 망실된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 등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정제된 의식을 환기시키며, 부재의 감각을 반복적으로 구현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장미 토끼 소금·살아 있는 제의’전은 2026년 1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 2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급 품과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613-7107.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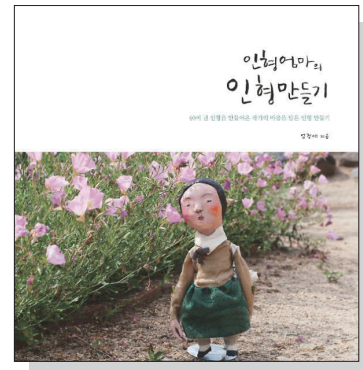
예술·놀이·치유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서

엄정에 ‘인형엄마의 인형만들기’ 출간

인형을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예술·놀이·치유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서가 출간됐다. 엄정애씨의 ‘인형엄마의 인형만들기’가 그것으로, 상상창작소 봄에서 나왔다.

“우리 인형은 모두 어디로 간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안내서는 손으로

종이를 붙이고 꿰매고 다듬으며 인형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 다 만들어진 인형을 기쁘게 맞이하는 순간의 감정, 작품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을 잔잔한 문장 속에 담고 있다. 인형을 만드는 과정



에서 몰입·치유·발견이 일어나며, 나만의 인형이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책 전반에 흐른다.

종이책대인형을 비롯해 관절인형, 마스크인형, 큰인형, 손인형, 모자인형, 납작인형, 인형극 그림 상자까지 총 8가지 인형 제작법을 수록했다.

재료 소개와 단계별 만들기 방법, 실습 팁, 공연 및 활용 사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작가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공연 현장 사진이 포함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올해 ACC 전시 3종 누적 관람객 30만명 돌파

‘ACC 미래상’·‘애호가들의 편지’·‘로지 이케다’
관람객 대상 기념 이벤트·누리 소통망 행사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복합전시 3, 4관에서 진행 중인 사운드 아트 거장 ‘ACC 포커스-로지 이케다’ 전시(2025. 7. 10.~12. 28.)가 지난 16일 기준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넘어섰다. ACC는 올 한 해 열린 전시 3종이 각각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난 2월 16일 막을 내린 ‘ACC 미래상: 김아영·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가 10만1803명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8월 24일 종료한 ‘애호가들의 편지’에는 총 13만4101명이 몰렸다.

지난 7월 10일 개막한 ‘ACC 포커스-로지 이케다’ 전시는 지난 16일까지 10만697명이 찾았으며,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ACC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사-봄의 선인’ 역시 지난 14일 기준 8만5518명이 방문해 이달 안에 10만 관람

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CC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ACC 포커스-로지 이케다’는 540평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개인전으로, 작가의 대표작 7점을 오는 28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ACC가 제작 지원한 신작 4점과 함께 작가가 20년간 축적해 온 연구와 기술적 실험이 집약된 대표작 ‘data-versel/2/3 (2019-2020)’를 아시아 최초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ACC가 진행한 이번 전시의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544명 중 수도권 관람객 비중이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CC는 이러한 요인으로 ‘로지 이케다’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함께 작가의 초대형 미디어 설치 작품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몰입감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내다봤다.

ACC는 ‘로지 이케다’ 전시의 10만 관람객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전시장을 찾은 10만 번째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박승오, 이자현씨 부부로 “특별한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 문화 식견을 넓힐 수 있어 평소 ACC에 자주 방문하며, 내년에도 열릴 전시도 몹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ACC는 연말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로지 이케다’ 전시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누리 소통망(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전시를 감상하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전시 도록을 증정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올해 ACC에서 개최한 전시 3종이 모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CC 공식 인스타그램(@asianculture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